모든 살림살이를 자기 마음 안으로만 낱낱이 돌리세요

☞ 17면에서 계속

게 쓰이는 데에 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꼭 이 공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면 절대로 그것은 세세생생에 해로운 것이 닥쳐온다는 얘깁니다. 왜냐? 그것이 습의 인과가 돼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부모들 한번 잘못하는 까닭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가 씨를 뿌려 놓은 거까지도 그냥 몇 대 손까지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 글쎄,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저 기도나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식구가 다 금이 되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모두 우린 장사를 하기 땜에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가게 문 잠가 놓고 왔다 갔는데도 하루 종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지, 어째서 이 중요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이 공부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선 급하죠. 먹고사는 문제, 그것도 이차죠. 그렇다고 해서 굶고 벌지 말고 다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버는 거 벌면서도 쪼끔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의 참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모른다면 죽어서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설법을 해서 당겨 주니까 여러분이 '아!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찾아가게끔 돼 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 보고 먹어 보고, 그래도 그러한 경험을 쌓고 맛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 그건 참 맛있더라. 그거 또 먹고 싶더라.' 이런 생각이 나고 '아, 참! 그 천은 참 좋아.' 이러기도 하고 '그 사람 참 좋기도 해.' 또 '집을 요렇게 지으면 참 좋을 거야.' 이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어우, 우린 왜 이렇게 광대뼈가 나왔지? 이거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출무상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죽을 때까지 기간이 바로 한 찰나의 기간밖엔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눈을 까뒤집고 하지 않아도 공부한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고, 그렇게 남을 밀치고 그냥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쉽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음 씀씀이에 얼마나….

그래서 내가 남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 거지, 그게 공덕이 돼서 주어지는 게 있지, 이것은 내가 갖겠다 하고 일을 하니까 항상 남도 이롭게 되지 않고 자기도 이롭게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저 좋은 일을 해야지, 요것을 '내가 줬지' 하고 주면 요건 한계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요 몇 원어치가 있어요, 몇 푼짜리. 그러면 몇 푼짜리를 생각하고 내가 요렇게 규정을 지어서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면 몇 푼짜리밖에 나한테 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무주상 보시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몇 곱쟁이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도리를 여러분이 아셔서 이왕지사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면 욕심을 조그만 데다 두지 마세요. 어차피 욕심이 있걸랑은 그저 모르는 척하고 못난 척하고 그냥 아예 바닷물을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쪼금 쪼금 뭐, 누구 주고 안 주고 간에 내가 다 집어삼킬 수가 있어야 남에게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이왕 도둑놈이 되려면 아예 그냥 우주 전체 대천세계를 몽땅 집어 자시지, 뭣 때문에 그 쪼끄만 거 도둑질을 해 가지고 붙잡혀 들어가서 10년 징역을 받고 20년 징역을 받고 평생 징역을 받습니까?

>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진실하게 안으로,
> 낱낱이 안으로 굴리고 안으로 돌리는 거,
> 이 생활하는 모든 거, 죽고 사는 거, 생사윤회를,
> 모든 거를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 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인과응보를 받고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러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그게 감옥이 아닙니까? 창살만 없다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감옥이지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 한 사람만이, 해가는 사람만이 바로 자유롭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창살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건 자유로울 겁니다. 돈이 없이 산다 하더라도 풍부한 대장부의 살림살이일 거고 말입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어느 생물이 사는 데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될 수 있고 창조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고정되게 있다면 그건 진리가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어디까지나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게 어떠한 모자라는 일이라도, '아하, 저 사람은 참 몰라.' 이러더라도, 또 '저 사람은 참 대인이야.' 그러더라도 대인은 대인대로 넣고 소인은 소인대로 넣어라 이거야. '소인이다' 하고 꼬집어서 업신여기지 말고 '대인이다' 하고선 아주 높다랗게 보지도 말고 오직 나로만 봐라 이거야, 나! 얕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나한테 낱낱이 안으로 굴려라 이거야. 안으로 돌려! 내 마음 안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지금 농담으로 '왔다' 죠.

그래서 전자의 부처님들도요, "책도 보지 마라. 앉아서 좌선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니 전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모두가 참선이니라. 그것을 납득하고 깨쳐라. 그 자고 깨고 모든 살림살이를 네 마음 안으로만 낱낱이 돌린다면, 어디서 구하겠느냐. 딴 데서 찾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바로 또 자기가 자라서 맘대로, 그 도구를 지혜롭게 길러 가지고서 그 지혜를 도구 삼아서 마음대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됐을 때에 비로소 남을 이익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신으로부터 남의 육신이 둘이 아니거든. 선지의 중생이 있고 또 악인의 중생이 있거든.

그러니 중생이다 부처다 둘이 아니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본래 이 도리는, 처음에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랬지마는 나중에 그 도리를 알고 보면 '아, 내가 본래 살아나온 것이 아니기에 죽을 것도 없구나. 아! 옮겨 놓을 뿐이로구나. 모습을 바꿔 놓을 뿐이로구나. 어차피 그럴 거라면 모습을 이걸로 저걸로 바꿔 놓는다, 없앤다 이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된다면 구태여 내 몸을 가지고서 화해서 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모두가 내가 될 줄 알고 앉아서 그이를 나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병이 났으니, 지금 죽게 됐으니, 머리가 돌았으니 이거 좀 고쳐 주시오." 하고 전화를 했어도 내가 갈 줄을 알아야 어떻게 하지. 만약에 육신으로 간다 하면 못 가잖아? 그럼 내가 천 개도 되고 만 개도 되고 때에 따라서 일거리가 없으면 두 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이럴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으로만 찾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물을 떠 놓고 빌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신들을 꽉 그냥 불러 놓고선 내보낼 줄을 모르는 거야, 불러 놓기만 하고는. 그러니 망할 수밖에. 하하하. 자기가 앉을 틈도 없이 갖다가 모셔다 놓는 거야. 신장이니 지장이니 무슨 뭐니 다 불러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진짜 지장이 옵니까? 전부 가짜지. 자기가 가짜기 때문에 가짜만 오는 거야. 거리 중천에 떠다니던 신들도 '내가 바로 서산 대사다. 지장보살이다.' 이러고 온다고. 그거에 속는다고, 다! 그러면 모습만 그렇게 그려 놓고선 자기가 그렇게 찾아봤던들, 그 안에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는 거야.

그러니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 자기도 가짜요, 그것도 가짜라는 얘기야. 자기가 가짜니까 그것도 가짜지. 가짜가 득시글득시글하다 보니까 가짜 짓만 할 수밖에. 그러니 집안에 뭐가 좋아요? 온통 망하고, 무당 집에는 무당이 꼭 나고, 박수 집에는 박수가 꼭 나고 이렇게 유전이 되게끔 만들어. 이게 뭔 짓들이야, 글쎄? 아니,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남의 꼭지에 매달려서 다녀야만 돼? 그래?

나는 만날 설법이라는 게 이런 것만 하니 글쎄, 이걸 어떡하면 좋우, 또? 허허허…. 아니 글쎄, 부처님이 좋은 말씀 해 놓으신 거를, 그거를 차곡차곡 그냥 넘겨 가면서 얘길 해 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야. 또 난 못나서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넘기면서 얘기 못 한다고. 내 말이라야 이렇게 그냥 순순히 나가지, 남의 말은 또 그냥 어줍어서 말도 못 해. 그리고 그거는 벌써 한 다리가 지나서, 어저께가 벌써 과건데 아니, 어저께 방편을 쓴 거를 오늘 말을 하면 되겠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못났더라도, 말을 잘못하더라도, 순서 없이 하더라도 배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차곡차곡 들어 줘요. 그렇게 해서 낱낱이 듣는 대로 자기 그 마음으로 그냥 돌리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어떻고 안 잊어버리면 어떻겠소. 듣는 순간순간 그냥 자기 마음으로 드는데. 말한 거야 잊어버려도 상관없거든. 벌써 듣는 순간 주인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게 벌써 직감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건 뭐, 멋들어지게 자기가 활용하는 데에, 체험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듣고 안 해 본 거라면 모든 걸 또 해 보게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길잡이의 이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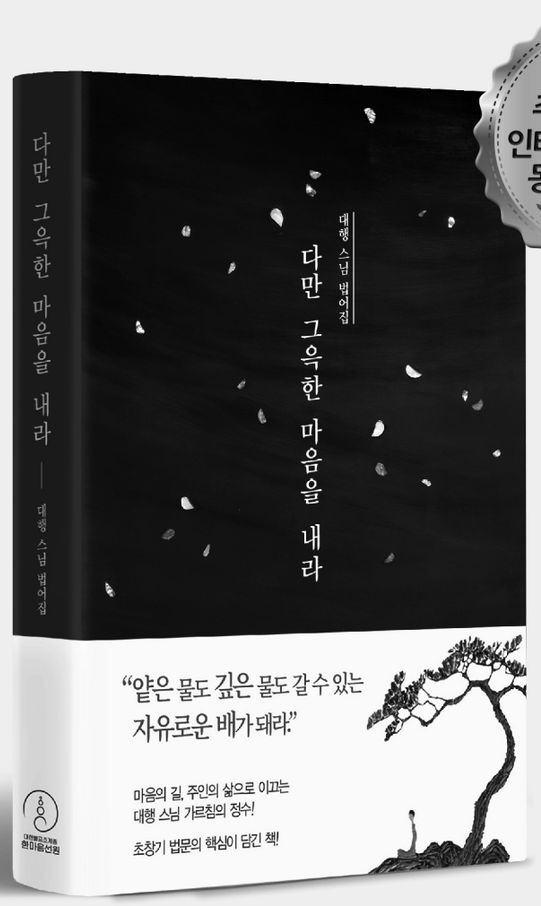
그래서 그 도리를 그전에 나도 무척 애를 쓰고 배운 거거든. 내가 항상 그러죠. '야! 너, 이게 길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야. 아, 신작로를 두고 길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야. 난 그렇게 애를 쓰고 배웠다고요.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니라. 그럼 길이 어떤 건가?' 내 스승은 내가 찾았지마는 내 스승한테 내가 배우는데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길이 아니고 저 아주 삐죽한 산 너머, 풀이 그냥 뭐, 나무가 그냥 빽빽하게 들어선 거길 길이라는 거라, 응? 대번에 그걸 말을 해 주면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빙그르르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내가 나한테!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나한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으로 낱낱이 돌리면 거기에서 참자기가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하! 저기 길만 길이 아니라 아, 그렇지. 체가 없다면 길이 길이냐?' 이거야. '그러니 내가 발이 없어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발이 있는데 있는 길로만 찾아다니지 어째 없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거 생각하는 데에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렸기에 그 도리를 그때서야 알았겠습니까? 참, 지금처럼 나 같은 못난이라도 좀 있어서 이루종차 좀 일러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러 줘서 아는 거는 아니되거든, 또.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자기가 찾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자기 스승한테 배워야 돼. 길을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 우리가 설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법을 해도 진실로써, 남의 말, 죽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생활에 지침이 되고 공부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설법을 하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걸로 돌렸다간 여러분에게 죄 이익이 없이 하고 나는 나대로 귀신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귀신을 만들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날까지 공부를 해 나왔는가.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가.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상황 상황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이 때로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나가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잘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위 법문은 1986년 4월 21일 일반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